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1. 우즈베키스탄, 11개 아시아 내륙국 중 수출입 통관시간 최장

이슈페이퍼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물류활성화 동향

물류정책·산업동향

1. 일본, 항만 중장기정책(Port 2030) 추진 논의 본격화
2.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 이후 최대 규모(14,855TEU급) 선박 통과
3. 롱비치항, 2005년 이후 디젤 미립자 물질 88% 감소
4. 훈춘 통상구, 셀프출입국심사대 서비스 정식 개시
5. DHL, 동남아시아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대규모 투자

명사 스피치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7. 8. 24. /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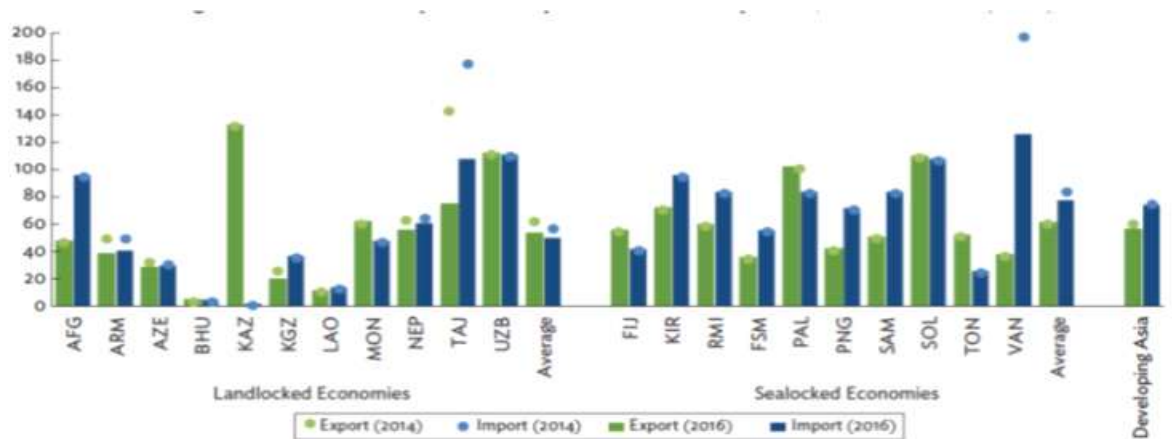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우즈베키스탄, 11개 아시아 내륙국 중 수출입 통관시간 최장

(단위 : 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륙국 및 소도서국 수출입 통관 시간(2014년 vs 2016년)



자료 : ADB, *Aid for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Promoting Connectivity in Geographically Challenged Economies of Asia and the Pacific*, 2017.

주 : AFG=아프가니스탄, ARM=아르메니아, AZE=아제르바이잔, BHU=부탄, FJI=피지, FSM=미크로네시아연방, KAZ=카자흐스탄, KIR=키리바티, KGZ=키르기스공화국, LAO=라오스, MON=몽골, NEP=네팔, PAL=팔라우, PNG=파푸아 뉴기니아, RMI=마셜군도, SAM=사모아, SOL=솔로몬군도, TAJ=타지키스탄, TON=통가, UZB=우즈베키스탄, VAN=바누아투.

-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출입 통관시간이 아시아의 주요 내륙국 중 최장을 기록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펴낸 보고서 *Aid for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에 따른 것임
 - 2016년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수출입 통관시간은 각각 111시간 및 108시간으로 비슷한 지리적 입지를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 중 최장으로 조사됨
- 카자흐스탄은 수입보다는 자국 상품의 해외수출 통관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카자흐스탄의 수출 통관시간은 130시간 안팎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한편 수입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가장 양호한 수준임
- 금번 조사는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물류시장 진출시 인프라와 금융보다는 통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임
 - 한편 무역관련 서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아프가니스탄과 라오스 등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됨

참고자료 : ADB(Asian Development Bank), *Aid for Trade in Asia and the Pacific*, 2017.

박성준 전문연구원

051-797-4774, sjpark@kmi.re.kr



이슈페이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물류활성화 동향

- 티그란 사르키산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및 교통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아담쿨 주누소프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에너지 및 인프라 장관은 지난 2년간 5개국이 도로교통망을 통한 국제운송 과정을 간소화 했으며, 이는 역내 수출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함
 - 또한 그는 2017년 8월 5일 정부간 협의체가 채택한 도로교통망 로드맵을 바탕으로 역내 국가들 간 공동 시장 형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자료 : www.eaeunion.org/

-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단일 운송 공간 형성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임
 - 아담쿨 주누소프 장관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e-CMR 관련 프로토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역내 국가들 간 수출입뿐 아니라 국제운송을 위한 통관 절차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중국에 제안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국과의 회담에서 에너지, 교통, IT 등을 주제로 한 총 39개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함
 - 그 중 메가 프로젝트는 유럽과 중국 서부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8,455km), 모스크바-카잔 고속도로 건설(770km) 그리고 중국-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임
 - 아담쿨 주누소프 장관은 아르메니아-이란 철도망을 연결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내 철도망 길이는 107.0km이며, 도로는 1605.9km임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교통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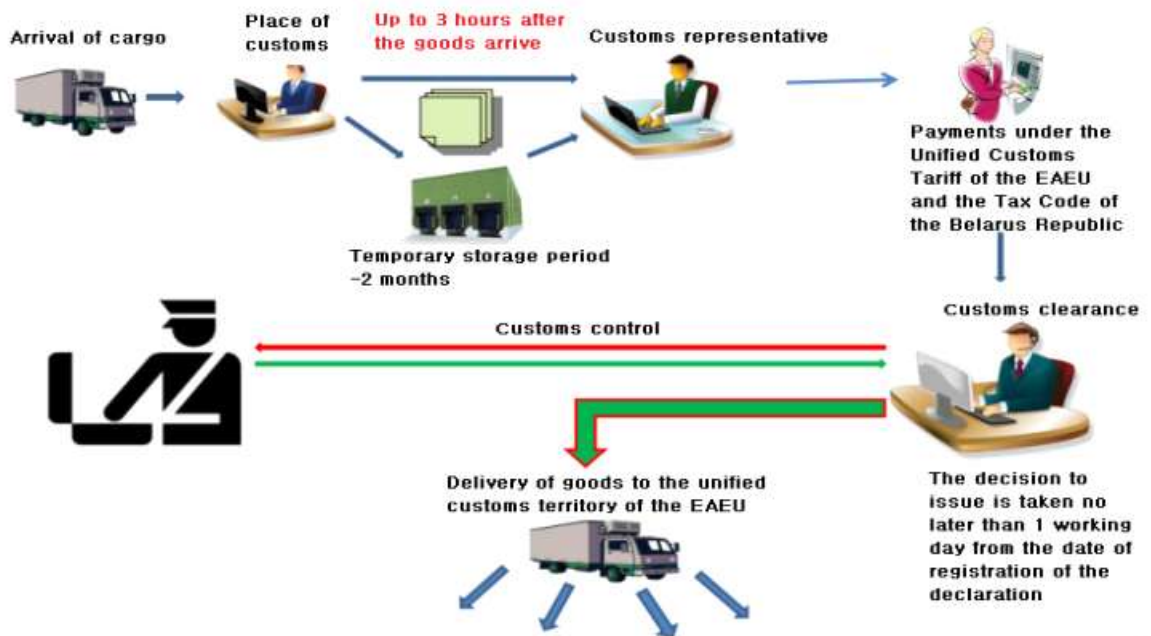


Source: DB Schenker

자료 : 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looks-link-eaeu-obor.html

-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역내 물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세법을 발표함
 - 티무르 솔레이베노프 카자흐스탄 국민경제부 장관은 “민족의 계획 - 100개의 세부방향”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출입 과정 및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새로운 세관법을 발표했음
 - 새로이 발표된 “카자흐스탄 세관 조정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어졌으며,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대상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
 - 유형 1과 3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모든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내에서 간소화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복합운송수단으로 상품을 운송할 시 각 유형의 운송수단에 대해 별도의 운송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하나의 운송신고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카자흐스탄은 작년 물류성과지수(LPI)에서 총 160개국 중 77위를 차지한 반면, 이 법규를 통해 올해 카자흐스탄의 물류성과지수 향상이 기대됨
- 카자흐스탄 열차 제조사가 관세동맹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열차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음
 - 전기기관차 KZ8A, 기관차 TE33A, TE33AC, 화물열차 12-9846 모델에 대해 선회 각도, 다양한 경사도를 가진 선로 등을 시험 및 평가하여 관세동맹의 통일된 규정에 따랐음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함
 - 관세동맹을 시초로 2015년 출범한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향후 회원국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교통·물류 및 수출입 과정에 단일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벨라루시 정부는 내륙운송 및 환적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계획 중임
 - “도로교통 및 운송에 대한” 새로운 법규는 2018년 1월 23일부터 효력이 생김
 - 국제운송회사들의 평가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며, 통관 절차가 간소화 됨
 - 역내 외국기업의 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벨라루시 운송화물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된 법규에 따른 벨라루스 내 통관 절차



자료 : 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looks-link-eaeu-obor.html

-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이란과의 협력도 추진 중임
 - “유라시아경제연합-이란: 교통·물류 네트워크 개선”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과 이란 간 교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
 - 베로니카 니키쉬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통상부 위원, 아마네스 아지잔 아르메니아 경제발전투자부 차관, 카나트 알마감베토프 카자흐스탄 교통노동조합 KAZLOGISTICS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시장의 자유화, 수출의 활성화,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함
 - 베로니카 니키쉬나 위원은 이란과의 안정적인 무역, 더 나아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함
- 역내 5개국은 2020년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항공운송서비스 공동시장을 형성하기로 합의함
 - 금년 8월 14일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정부간 협의체 회의에서 5개국은 항공운송 분야 공동시장을 형성하기로 합의했음
 - 이 회의에서 ‘2018-2020 항공운송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한 통일된 교통정책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확인했음
 - 그 뿐 아니라 역내 국가 수출업자들의 러시아 항만 사용 여부, 2016년 역내 국가들 간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분배 문제 등을 논의 했음
- 올해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는 작년 대비 30% 증가함
 -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위기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무역 규모는 더 커졌다고 강조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역내 무역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간소화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출범 이후 2년간 역내 도로 교통량은 4%, 운송량은 7%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환적화물 운송량은 2%, 화물운송량은 3.2% 증가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주도국인 러시아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파시킬 수 있는 출구를 찾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대러 경제제재에 더하여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혐의로 추가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악화되었음
 -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투자 규모가 러시아를 앞지르면서, 역내 러시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
 - 이에 따라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발판삼아 교통,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옛 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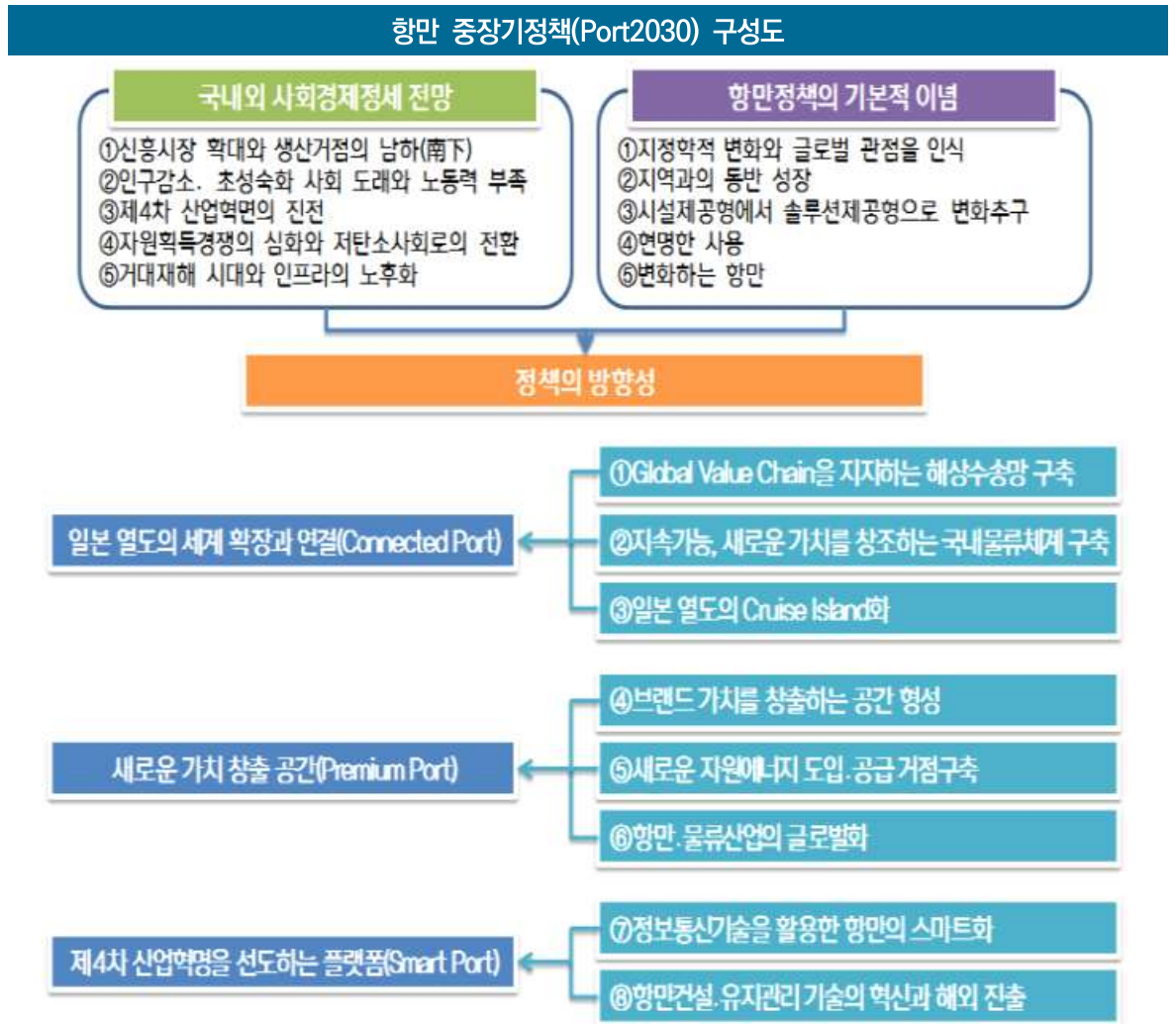
■ 참고자료 : newtimes.kz, 2017.8.22. / rzd-partner.ru, 2017.8.28. / eadaily.com, 2017.8.23. / tengrinews.kz, 2017.8.1. / rus.azattyk.org 2017.8.29. / knews.kg, 2017.8.26. / belta.by, 2017.8.14.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일본, 항만 중장기정책(Port 2030) 추진 논의 본격화

- 금년 8월 29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1회 항만 중장기정책검토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됨
 - 본 회의에서는 항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물류, 산업, 방재, 신기술의 활용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됨
 - 특히 지난 4월 교통정책심의회에서 책정된 항만 중장기정책(Port 2030)을 검토하고, 향후 민간 기업을 비롯한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 청취, 의견 교환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 항만 중장기정책은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에 대한 전망과 항만정책의 기본적 이념을 규정하여 책정되었음
 -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의 전망은 ① 신흥시장 확대와 생산거점의 남하(南下), ② 인구감소·초성숙화 사회 도래와 노동력 부족, ③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④ 자원획득경쟁의 심화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⑤ 거대재해 시대와 인프라의 노후화로 평가했음
 - 항만정책의 기본적 이념은 ① 지정학적 변화와 글로벌 관점을 인식, ② 지역과의 동반 성장, ③ 시설제공형에서 솔루션제공형으로의 변화 추구, ④ 현명한 사용, ⑤ 변화하는 항만으로 제시했음
- 이에 항만 중장기정책에서 2030년대 항만의 역할은 'Connected Port', 'Premium Port', 'Smart Port'로 제시함
 - 'Connected Port'는 글로벌 SCM, 농림수산물 수출, Electronic Commerce를 활용한 시장 확대, 재생부품 수출 등을 통한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 구축, 아시아 크루즈 수요에 대응한 기항지의 전국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Premium Port'는 지역 가치 향상, 로지스틱스를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발굴, 자원에너지 체인의 세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융복합 산업 육성, 지구환경과 해양권익의 보전 등의 사안을 제시함
 - 'Smart Port'는 AI와 IoT를 활용한 항만 건설·유지 관리·운영 사이클 전체의 스마트화, Connected Industries를 지지하는 플랫폼 구축과 Smart Work화 촉진 등을 구상함
- 이러한 항만의 역할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 제안을 통해 중장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Connected Port' 구축을 위해 ① Global Value Chain을 지지하는 해상수송망 구축, ②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국내물류체계 구축, ③ 일본 열도의 Cruise Island화를 전개할 예정임
 - 'Premium Port' 구축을 위해 ④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형성, ⑤ 새로운 자원에너지 도입공급 등의 거점구축, ⑥ 항만물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할 계획임
 - 'Smart Port' 구축을 위해 ⑦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스마트화, ⑧ 항만 건설·유지관리 기술의 혁신과 해외 진출을 구상하고 있음



자료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한편, 중장기 항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집단과 위원회를 구성해 각 지역의 과제와 니즈를 파악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 향후 주제로는 ① 일본연안지역의 해상수송망 확충 방안 및 유라시아 대륙 물류 동향, ② 농림수산물수출 등 지역차원의 수출촉진 방안, ③ 지방 기반산업 지원을 위한 내항항로 활용 및 확충 방안, ④ 이도(離島), 도서(島嶼) 활성화 방안, ⑤ 세토(瀬戸) 내해의 크루즈선 활용을 통한 지역진흥대책 등이 예상됨

■ 참고자료 : mlit.go.jp, 2017.8.29.

최나영환 전문연구원

051-797-4677, chnayoung@kmi.re.kr

파나마운하, 확장 개통 이후 최대 규모(14,855TEU급) 선박 통과

- 2017년 8월 22일, 파나마운하의 확장 개통 이후 네오파나막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박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함
 - 14,855TEU급 컨테이너선박인 CMA-CGM Theodore Roosevelt(이하 “루즈벨트호”라 함) 선박이 파나마운하를 통과함
 - 루즈벨트호는 네오파나막스(Neopanamax)급 선박으로 총 길이 365.9m, 폭 48.2m, 흘수 15m의 제원을 보유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는 당초 파나막스급(5000TEU급: 길이 295m, 폭 32m) 선박의 통과만 가능했으나, 지난 10년에 걸친 확장공사로 대형선박의 통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나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확장 개통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CGM-CGM Theodore Roosevelt 선박



자료 : <https://www.panacanal.com/eng/pr/press-releases/2017/08/22/pr632.html>

- 루즈벨트호는 파나마 운하를 통해 아시아와 미국 동해안 항만을 연결하는 OCEAN Alliance의 주간 South Atlantic Express(SAX) 서비스에 배선되는 선박임
 - SAX 서비스 노선에는 CMA-CGM 4척, COSCO 5척, OOCL 2척 등 총 11척의 11,000~14,000TEU급 선박이 투입됨
 - 전체 서비스 노선은 ‘홍콩~안티안~닝보~상하이~파나마~Norfolk~사바나~찰스턴~홍콩’ 임
- 한편 파나마운하관리청에 따르면, 루즈벨트호가 파나마운하를 통과함에 따라 총 29,56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했다고 밝힘
 - 또한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선박 전체적으로도 운항거리 단축 및 초대형선박의 운송능력으로 인해 약 1,70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데 기여함

■ 참고자료 : panacanal.com, 2017.8.22.

김영훈 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롱비치항, 2005년 이후 디젤 미립자 물질 88% 감소

- 남부 캘리포니아항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롱비치항은 2005년 대비 디젤 미립자 물질 88%, 질소 산화물 56%, 황 산화물 97%, 온실가스 22%가 감소했음
- 롱비치항은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년 대기 오염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해마다 최신 데이터 및 방법론을 사용해 2005년 수준과 비교한 대기 질 개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음
- 2005년부터 대기오염을 모니터링해 온 롱비치항은 청정 트럭 프로그램, 선박의 연료 규제, 선박 속도 규제 프로그램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항만청의 그린포트 정책에 따라 대기환경 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발된 롱비치항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항만의 대기 및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항만 인근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
- 마리오 코데로(Mario Cordero) 이사에 따르면 “롱비치항은 항만의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항만들보다 무공해 항만 장비의 비중을 높였으며, 앞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이 제로에 도달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참고자료 : americanshipper.com, 2017.8.28.

김병주 연구원

051-797-4784, bjkim17@kmi.re.kr

훈춘 통상구, 셀프출입국심사대 서비스 정식 개시

- 금년 8월 19일 훈춘 국경검문소는 '평안한 국경, 매일 당신과 함께'라는 표어를 선보이며 개선된 국경검문서비스를 홍보하는 동시에 셀프출입국심사대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함
 - 이로써 훈춘 통상구는 길림성에 속한 통상구 중 최초로 셀프출입국심사대를 갖춘 통상구로 기록됨
 -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입국 심사는 먼저 신분증 판독기를 통해 1차 판독을 거친 후 입구가 열리면 신분증을 챙겨 통로 안으로 들어감
 - 2차로 등록한 지문을 인식한 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통해 안면 인식에 성공하면 문이 열리면서 출입국 심사가 끝나며, 모든 셀프출입국심사대를 통한 입국심사 소요 시간은 약 3초 정도임
- 중앙당국公安부는 매년 8월 19일을 "중국 국경검문서비스 홍보의 날"로 지정해 국경검문과 관련된 일련의 민생편의 서비스를 홍보하기로 함
 - 중국 국경검문서비스 홍보의 날은 전국 국경 검문소의 출입국검사 서비스 수준 개선, 원활한 통관 서비스 제공, 엄격한 통제 준수 등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제정됨
 - 公安부는 전국의 국경검문소의 통일된 업무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향상 목표를 실무진과 함께 그 인식을 공감할 것을 기대함
 - 또한 국경검문서비스 홍보의 날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이번 훈춘시의 셀프출입국심사대 서비스 개시는 국경검문 업무의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 효과 뿐만 아니라 대륙-동해-태평양을 잇는 동북아 물류집배송허브로서의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훈춘 국경검문서비스 홍보의 날 기념행사



자료 : sohu.com (2017.8.21.)

셀프 출입국심사 사용방법



자료 : sohu.com (2017.8.21.)

■ 참고자료 : jldofcom.gov.cn, 2017.8.21.

공영덕 연구원

051-797-4778, ydkong6053@kmi.re.kr

DHL, 동남아시아 물류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대규모 투자

- DHL Supply Chain사는 2020년까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7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 DHL사는 동남아시아 내 급성장 중인 메콩 지역 4개국에 대해 연간 매출 성장률 10%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3년 이내 신규 물류시설 및 화물차량 확보, 신기술 투자를 통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 내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동남아시아 물류시장은 DHL사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잡음
 - 베트남 물류시장은 DHL사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성장할 만큼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음
 - DHL Supply Chain의 John Gilbert CEO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물류시장은 자사 매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력 및 배송기술의 향상 등이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힘
- 동남아시아 4개국 가운데 특히 태국 물류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음
 - 태국 물류시장 공략을 위해 최근 사옥을 방콕 내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한 바 있음
 - 또한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부경제회랑(Eastern-Economic Corridor) 내 인프라 구축, 공항 확장 등의 계획에 맞춰 물류시설 투자를 강화할 계획임
 - Kariskon Bank의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육상운송 및 보관, 창고의 시장 가치는 5~7%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태국 물류시장 내 3PL 부문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향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시설 투자를 늘려갈 계획임
 -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 물류시장 내 70개 이상의 물류시설과 65만㎡ 이상의 창고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 아래 자동화 로봇, 무인차량 등 지능형 시스템 도입으로 태국 물류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3PL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태국, 베트남 등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등 주변국의 물류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체 물류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logasiamag.com, 2017.8.28.

김동환 연구원

051-797-4913, kdong@kmi.re.kr

